



녹용의 한방임상효능

Clinical Effects of Velvet Antler in Oriental Medicine



안덕균/자생생명공학연구소 소장

머리말

인간이 부모에게서 태어남에 있어 건강함과 부족함이 있고, 질병에 잘 감염되는 사람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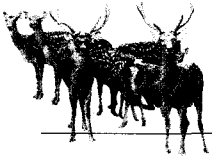
녹용은 하늘과 자연이 준 명약으로 건강한 이가 복용하면 더욱 강건해지고, 병약한 사람에게는 항병력을 크게 신장시키는 특이성이 있다. 그러므로 옛 의성들은 녹용이 순양(純陽)의 기질을 가지며 발생(發生)의 기운을 품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순양은 부모에게서부터 이어받은 선천적인 기운을 말하는데 사람에게서 이 힘이 부족하면 여러 종류의 질환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를테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어준 생명의 원천이 순양이요, 진원(眞元)인 것이다.

녹용은 사람에게서 부족하기 쉬운 양기(陽氣)를 도와주면서 인체에 근원적인 힘이 되는 정수(精髓)와 대를 이어 주는 정액, 그리고 혈액의 생성작용을 활동력 있게 끌어주고 혈액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또 녹용은 어느 특정체질인이나 남녀와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통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로 효능이 작용하는 장기는 명문(命門)과 심포락(心包絡)과 간(肝) 신(腎)의 음분(陰分)이며 순전한 양기, 진수가 되는 양기(陽氣)를 진양(眞陽)을 보하므로 여러 종류의 병증예방과 기력을 상승시키면서 의지력을 강건하게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녹용은 노동력을 과다하게 수모시켜서



발생된 기력감퇴증상과 신체가 파리리하고 수척하면서 기운이 없고 허리가 아픈 증상에 체내에서 부족하기 쉬운 화기(火氣)와 양기(陽氣)를 도와주므로 정액 생성작용을 돕고 골수의 재생력을 증강시켜서 골격을 강인하게 하면서 근육의 탄력과 수축작용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게 된다. 그러므로 유정, 몽정을 방지하면서 정액생산을 민활하게 하고 대소변은 조절하면서 하초(下焦)를 건실하게 이끈다. 이런 이유로 허약아체질에 가장 유익하게 되면서 기력을 올리게 하는 까닭이다.

(1) 기미이론(氣味理論)

기(氣)와 미(味)는 약물이 가지고 있는 생리활성반응으로 맛을 느끼는 효능이요,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라고 말한다.

녹용의 맛은 달고 조혈, 보혈시키는 공효가 커서 혈액대사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약성이 따뜻한 것은 화(火)를 인도하여 제거시키므로 잘 놀래고 간질증상을 보이는 것이 한(寒)과 열(熱)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그치게 한다. 기운이 증강된다는 것은 약성의 온(溫)성이 양기(陽氣)를 증가시킨다는 뜻이고 녹용의 맛이 달다는 것은 음기(陰氣)를 증강시킨다는 의미이다.

기미(氣味)가 달고 따뜻한 것은 음양(陰陽)의 기(氣)를 증강시킨 것이며 기(氣)가 왕성하게 되면 의지(意志)가 강하게 된다. 또 녹용은 미골화된 골질 성분이 다량 함유되고 있어서 골(骨)에 속하고 치아도 골에서 생성되므로 달고 따뜻한

약성과 맛은 생장을 위주로 하며 치아발생의 직접요인이 되기도 한다.

녹용은 부모에게서 받은 선천적인 기능저하나 후천 요인으로 발생한 신체의 허약증상을 개선시키는 가장 뛰어난 약물인 것이며 응용자에 따라서 배합처방을 구성하므로서 탁월한 약효를 나타내는 성장발육촉진과 장수보약, 항노화 약물이 되는 특이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최근의 다양한 연구성과에서 보면 고전에서 전통적으로 써왔던 치료범위를 뛰어넘어 획기적인 치료방향을 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성과들이라고 여겨져서 자료를 활용해야만 응용범위가 높아질 것으로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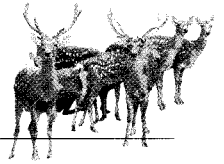
(2) 임상응용

1. 소아과 질환

1. 성장발육촉진

생후 100일부터 녹용은 모든 어린이에게 활용할 수 있다. 대개의 어린이 유아들은 나날이 자랄수록 쑥쑥 커 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몸이 마르고 젖을 잘 먹지 않거나 혹은 설사나 물변을 자주 보면서 영양공급이 원활치 못하므로 성장력이 둔화되는 증상에 녹용은 탁월한 치유력과 기운을 올려주고 발육을 왕성하게 이끈다.

여러 가지 병원미생물에 대한 항균작용으로 신체의 방어력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감염되지 않게 한다. 예를 들면 1세 아이에게 녹용 4g 백출 4g을 넣고 2시간 끓여서 그 다린 물을 1일 3회 복용시키면 늘 복통, 설사, 구토를 일으키던 아이가 젖을 잘 먹고 밥도 먹으면서 잘 뛰고 노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에 귀룡탕(歸茸湯)도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2. 감기에방

환절기나 겨울에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가 있을 때에 녹용 4g에 당귀 4g 계피 4g을 다려서 복용시키면 감기 바이러스에 항병력을 얻으면서 성장발육이 왕성하게 된다.

땀을 잘 흘리고 피부가 연약해서 감기에 잘 걸리면 황기 8g, 방풍 4g을 배합해서 복용케하면 감기가 안 걸리고 콧물, 재채기도 없이 낫는 반응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감염성 질환에도 예방효과가 매우 높다.

3. 식욕증진

밥을 잘 먹지 않고 간식을 주로 한다든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많이 먹는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식욕이 감퇴되기 마련이다. 이 때에 녹용 4g, 백출 8g, 사인 4g을 배합해서 2시간 물로 끓인 물을 하루 3회 재탕도 가능하면 실시해서 복용시키면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간식이 줄어든다.

간식은 맛이 달고 먹고나면 또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 식욕감퇴와 신체의 저항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배합처방이 유효하다.

4. 보행장애개선

다른 아이에 비해서 성장과 발육이 늦고 잘 뛰거나 짚는 것이 더딘 어린이에게 녹용 4g, 두충, 구척 각 4g 오가피 8g, 산사 6g을 배합하면 하체의 탄력이 증가하면서 성장력이 향상되고 다리에 힘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치아가 늦게 나면서 발육이 더딘 아이에게 녹용은 치아의

발생을 촉진시키고 골격과 근육의 탄력을 증가시킨다.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이 적용된다.

5. 지혜력(뇌력) 향상

어린이는 나이에 비례하여 복용시키는데 2살이면 1첩, 3살이면 2첩, 6살이면 3첩 단위로 1년에 2회 복용시킨다. 이때에 신체적인 성장과 발육을 촉진케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뇌의 발달이 크게 향상된다.

이를테면 오미자, 인삼, 당귀, 가시오가피 등을 배합하면 기억력증진, 대뇌세포의 분화촉진, 뇌혈류촉진, 뇌대사를 왕성케하므로 IQ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고력, 상상력, 추리력, 기억력, 집중력이 향상되고 뇌력이 상향 조절되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여기에 총명탕이나 오미자, 은행잎의 배합은 뇌력향상에 더욱 활발한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귀비탕(歸脾湯)에서도 확실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6. 과다복용시 부작용

연령에 따른 기준치 조정은 체력향상, 뇌력향상에 크게 작용하지만 어린이에게 어른에 해당하는 용량의 복용은 과다용량으로 체중증가와 함께 대뇌세포의 억제작용으로 기억력 사고력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령에 알맞는 복용량을 전혀 염려 염려될 것이 없고 1년에 2회 복용하면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7. 백일해

지금은 예방주사로 예방하고 있는 백일해는 소아에게 감염되면 100일 동안 해소가 격렬하고 가래의 배출이 많은 소아



질환이다. 이 때에 녹용4g 길경, 패모, 자원을 배합해서 복용시키면 즉시 진해, 거담작용을 얻어서 속효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효과는 기관지 보호와 공팔기능 항진으로 더욱 신속한 치료반응을 얻게 되는 것이다.

II. 청소년 질환

녹용의 효능은 배합하는 약물에 따라서 병증의 적용도가 크게 변화된다. 이를테면 보기(補氣)시키느냐 보혈(補血) 위주냐, 아니면 성장촉진이나, 척추질환치료나에 따라서 좌우된다.

1. 성장력 촉진

청소년기에는 역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이므로 구척, 두충, 속단 등의 약물을 배합해서 골격 세포의 분화촉진작용을 유도하면서 근육세포의 수축력과 신장력을 강화시키는 효능을 이끌어내는 작용에서 역시 중심 축을 이루는 것은 녹용의 효능이다. 현재 시판되는 성장관계 건식들이 많지만 녹용이 없이는 효능이 감소되고, 또 녹용의 용량이 이름만 표기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 효능으로 이끄는 수준이어야 한다.

2. 성욕 억제 작용

청소년기에는 신체발달이 왕성하여 지는 것은 역시 신장기능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억제시키면서 공부와 학업에 열중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첫째 목표가 된다. 이를테면 용담사간탕(龍膽瀉肝湯) 제재에 녹용, 원육, 산조인, 원지를 배합하면, 성욕억제와 함께 집중력이 강화되면서 번민제거, 흥분억제,

진정, 안정성을 유도하므로 학업에 전념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학업성적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지혜발달

어린이에게서와 같이 청소년기에도 머리에 지능지수를 향상시키고, 집중력, 사고력, 추리력, 상상력, 추진력 등이 녹용단방으로도 효용성이 매우 높지만 복합처방에서는 크게 높아짐을 임상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용자와 복용치 않은 사람과는 지능지수 활용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총명탕, 귀비탕, 주자독서환등이 적중되는 처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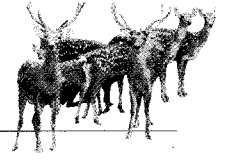
4. 성장촉진인자

녹용은 인체내에서 물질대사의 반응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다린 액은 생장 작용을 촉진시키고 간장에서 단백질 함량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간장과 신장에서의 단백질함량 증가나 RNA 증가, 고환과 간장 중량증가, 혈청 중 단백질 증가 작용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녹용은 척추신경조직의 산소소모량의 증가로 호흡증가와 당효소 분해 촉진작용을 보이고 있다. 두충, 구척, 속단이 이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III. 부인질환치료

1. 산전산후질환

녹용의 효능 중에 안태하기(安胎下氣)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임신 중에 복용하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위로 상기되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 주워서 효능을 원활하게 이끌면서 활동력을 증가시킨다는 뜻이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임신 중에 녹용을 먹으면 태아에게 영양과 약효가 전달되어 태아만 성장하므로 해산 시에 고통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직까지 접하지 못하였다. 이런 속설들을 들을 때마다 환자의 예민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산모가 극도로 허약하고 빈혈이 심하고 식욕도 없고 구토만 연달아서 할 때에는 녹용을 써서 체력향상과 빈혈치료에 힘써야 한다.

출산 전 1개월에 복용하면 산모도 건강하고 태아도 건강하게 태어나면서 일생동안 건강인으로 활력 있게 살아가게 된다.

해산 후에는 자궁 내에 산후악혈(産後惡血)이 있게 되므로 먼저 이것을 제거시키는 요법을 2-3일 시행한 후에 이어서 녹용과 그 배합처방을 복용하게 하면 산후 질환치료에 현저한 공효를 얻게 된다. 이를테면 요통, 팔다리 저림증, 어지럼증, 허약증이 개선되면서 기력이 상승되게 한다. 산후에 녹용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말이 있는데 녹용이 식욕증가효과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산후에는 산모가 체중이 크게 증가되어서 몸이 무겁고 소변의 배설로 잘 안되므로 이 때에는 주로 이뇨효과가 탁월한 약물을 쓰거나 체지방도 저하되는 약물을 복용하면 체중을 도리어 감소시키면서 산후 후유증치료에도 기여하게 된다.

필자는 산후에 녹용을 배합한 처방을 쓸 때와 일반 산후 보약처방만을 복용시켰을 때에 효력 상에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녹용배합처방을 투여했을 때에 체력 향상과 골격계질환 치

유력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2. 자궁출혈

여성이 자궁출혈을 자궁기능 허약에서 주로 발병되는데 하복부가 차고 생리가 불규칙하면서 조금씩 자궁출혈이 있거나 때로 급격하게 다량의 출혈증상을 보일 때에 녹용을 쓰는 것은 신장과 자궁기능 회복작용에 효력을 얻기도 하고 또한 출혈로 인한 빈혈 치료제로도 녹용은 현저한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대개는 교애사물탕(膠艾四物湯)에 가미하거나 아교, 녹용, 당귀 배합으로도 효력을 나타내게 한다.

3. 난산

산모가 허약하여 해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체력을 순간에 상승시키면서 하복부의 자궁근육까지 수축력을 강력하게 이끌므로 해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역시 시장기능을 강하게 올리면서 수축작용을 강화시켜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녹용은 임신부의 해산 촉진제로도 유효하다는 근거가 된다. 단 녹용탕이 여기에 쓰이는 방제이다.

4. 불임치료

임신을 해야 할 사람이 기력과 혈액이 모두 부족하여 임신을 못하였거나 혹은 대하가 심하거나 쌀뜨물이나 우윳빛 같은 분비물이 흐를 때에도 역시 임신이 잘 안되는 때가 허다하다. 이와 같은 증상에도 신장기능 강화와 보혈, 조혈기능을 도우면서 임신에 이르게 기운을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 때에는 녹용보다 녹각상(鹿角霜)을 가미한다. 유린주가 여기에 쓰이는 처방이다. **민국양록**